

금병매(金瓶梅)

康泰權(국민대 중어중문과 교수)

一 들어가는 말

《金瓶梅》는 《三國志》·《水滸傳》·《西遊記》와 함께 중국의 明代 四大奇書로 일컬어진다. 《三國志》가 歷史小說로, 《水滸傳》이 俠義小說로, 《西遊記》가 神魔小說로 그리고 《金瓶梅》는 중국의 대표적인 艷情小說로 각각 分類된다.

조선시대에 이미 《三國志》·《水滸傳》·《西遊記》등의 번역서가 있으나 《金瓶梅》는 그 번역서가 거의 눈에 띄이지를 않는다. 그 이유는 朝鮮시대가 지나치게 도덕을 숭상하는 전통사회였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 그러나 朝鮮時代 光海君朝의 許筠(허균)이 《閑情錄》에서 《水滸傳》과 《金瓶梅》가 매우 뛰어난 작품이라고 이미 언급을 하고 있고, 또한 다른 文集에서도 그 作品名이 舉論되는 것으로 추측컨대, 이 책은 대개 1775년을 전후해서 우리나라에 유입되어졌다고 보고 있다.

二. 본 말

1. 작자와 저작시기

1) 작자: 蘭陵笑笑生.

王世貞·王世貞門人·李卓吾·薛方山·趙鶴·馮惟敏·李開先·徐渭·盧南·李漁등 이십여 명에 가까운 인물들을 舉論. 아직까지도 정확한 작자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 苦孝說 - 왕세정 <清明上河圖>

2) 저작시기; 明 世宗年間(1522-1566)에 이루어 졌다는 嘉靖說과, 神宗年間(1573-1619)이라는 萬曆說의 두 說.

* 明 十三陵 - 神宗 <無字碑>

2. 版本

1) 萬曆本系統 : 제 1회는 「景陽崗武松打虎, 潘金蓮嫌夫賣風月」이며 초반부 5회는 <수

호전>의 고사를 변형시킨 것들이다.

2) 崇禎本系統 : 제 1회가 서문경이 다른 10명과 의형제를 맺는 것으로 시작. 그림들을 싣고 있으나 101쪽 혹은 200쪽등 일정치 않다.

3. 이야기 줄거리

場所: 山東省 清河縣,

時間: 北宋 徽宗 貞和2년(1112년)-南宋 高宗 建炎 元年(1127년)

武松은 景陽崗에서 호랑이를 죽이고 清河縣의 警備隊長이 되고 武松·武大兄弟는 반가운 邂逅를 한다(제1회: 貞和 2년, 1112년). 武大의 婦人인 潘金蓮은 西門慶과 우연히 눈이 맞아(제2회: 靖화 3년, 1113년), 仲媒人 王婆의 도움으로 밀애를 즐기다 결국은 무대를 독살한다(제5회). 이 일이 있고 난후에 서문경은 더욱 방자해져서 집에 本婦人 吳月娘, 妓女출신의 李嬌兒, 下女 출신의 孫雪娥 등의 여인이 있었으나 이에 만족하지 못하고 中媒人 薛嫂의 소개로 알게 된 돈 많은 과부 孟玉樓를 부인으로 맞이 한다(제7회). 동경으로 심부름을 갔던 무송이 돌아와 보니 형 무대는 억울하게 독살을 당하였고, 반금련은 이미 서문경에게 시집을 간 후 였고, 무송이 관청에 이 억울한 사정을 고발하였으나 서문경의 농간으로 일을 성사시키지 못한다(제9회). 이에 무송은 주루에서 술을 마시던 서문경을 찾아가서 형의 복수를 하려다 도리어 다른 사람을 서문경으로 알고 살해하여 맹주로 유배를 떠난다(제10 회). 한편 서문경은 의형제를 맺은 이웃집 花子虛의 부인인 李瓶兒와 密通을 하여 화자허가 24세의 젊은 나이에 화병으로 세상을 뜨게 만들고 (제14회), 이병아와 그녀가 지닌 모든 재물을 차지한다(제20회). 서문경은 이 재물을 이용하여 藥房과 布木商등을 크게 늘리고, 이렇게 모은 재물을 당시의 세도가인 太師 蔡京에게 보내어 그 댓가로 ‘山東提刑所副千戶’라는 武官직의 벼슬을 얻게 되고 이병아에게서 아들 官哥를 얻으니 慶事가 内外로 겹친다(제30회). 이때부터 탐욕스러운 수탈 행위와 부녀자를 籠絡하는 행위는 더욱 더 기승을 부린다. 서문경의 이러한 행위가 御使 曾孝序에 의해 上奏되었으나 서문경은 채경에게 뇌물을 써서 증거사를 도리어 左遷시켜 버린다(제48회). 그런 연후에 산동어사를 채경의 문하인으로 바꾸고 그와 한 통속이 되어 세금을 탈세하거나 국가의 專賣品인 소금을 많은 뇌물을 써서 다른 사람보다 먼저 현물을 인수 받아 판매하는등의 불법적인 행위를 일삼아 그의 재산은 날이 갈수록 늘어만 간다. 한편 우연한 기회에 胡僧에게서 春藥을 얻으니(제49회), 서문경은 이를 이용하여 그의 淫行을 더욱 즐긴다. 이러한 생활속에서도 채경의 생일날에 손수 선물을 준비하여 감으로써 채경의 환심을 사 결국은 그의 수양아들이 된다(제55회). 집안에서는 이병아가 관가를 낳음으로 인해서 西門慶의 사랑을 독차지하게 되자 이를 심분 嫉妬한 반금련은 마침내 훈련된 고양이(雪獅子)로 하여금 관가를 놀라게 하여 그것이 화근이 된 관가는 생후 일년 2개월만에 세상을 뜨게 된다(제59회). 이 일이 있고 나서 이병아는 아이를 잃은 상심한 마음을 어찌지 못하고 그녀 역시 세상을 등진다(제62회). 競爭者가 없어진 반금련은 서문경의 사랑을 독차지할 수 있으리라 기대를 하였으나 서문경은 집안의 여인들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여전히 妓女나 寡婦·下人의 부인들과 놀아 난다. 그런 생활중에서도 서문경은 東京에 가서 徽宗을 謁見하는 영광된 기회와 正千戶로 승진하는 일이 생기고 이에 의기양양해진 그는 더욱 방탕한 생활을 한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행동도 반금련이 그녀의 過度한 淫慾을 억제치 못하여 胡僧이 준 春藥을 서문경에게 過多하게 服用시킴으로서 서문경은 결국 33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뜨고 이때 本婦人인 오월랑은 아들 孝哥를 낳는다(제79회).

서문경 死後에 西門家は 沒落의 길을 걷게 된다. 집안의 주인이 된 오월랑은 34세된 이교아를 張二官에게 300냥에 팔고(제80회), 또한 사위인 陳經濟와 눈이 맞아 놀아난 春梅는 周守備에게 15냥에(제85회), 반금련은 100냥에 왕과에게 팔아넘기고 사위인 진경제도 집밖으로 내쫓는다(제86회). 귀양길에서 돌아온 무송이 이 소식을 듣고 반금련을 사서 무대의 제단앞에서 왕과와 함께 죽임으로써 억울하게 죽은 형 무대의 죽음을 복수한다(제87회). 세번째 부인인 맹옥루는 37세의 나이로 지사의 아들인 이아내에게 시집을 가 새로운 생활을 한다(제91회). 네번째 부인인 하녀 출신의 손설아는 서문경 死後에 집안이 어지러운 틈을 타서 오월랑의 財物을 훔쳐 달아났다가 잡혀와 결국은 춘매의 손에 팔려 간다(제 90회). 서문경의 집에 있을 때부터 그녀를 눈에 가시처럼 여기던 춘매는 손설아에게 온갖 모욕과 迫害를 가하고 후에 公娼에 팔아 넘기니, 자신의 신세를 한탄한 그녀는 결국 35세의 나이로 목메어 자살을 한다(제99회). 주수비집에 팔려가서 아들도 낳고 정실부인까지 되었던 춘매는 서문가에서 쫓겨나 가산을 蕩盡하고 거지생활을 하던 진경제를 수소문하여 찾아내 그를 주수비家로 불러들여 옛정을 잊지 못하고 놀아난다. 결국 이들의 행위가 하인인 張勝에게 발각되어 진경제는 27세의 나이로 장승의 칼아래 목숨을 잃게 된다. 진경제가 죽은 후에도 과도한 음욕을 억누르지 못한 춘매는 집안 노복의 아들인 周義와 놀아나다 그것이 병이 되어 29세의 나이로 세상을 뜬다.

서문경의 正婦人인 오월랑은 아들인 효가가 15세 되던 해에 그를 ‘明悟’라는 이름으로 出家시키고, 하인이었던 玳安을 養子로 삼아 (西門玳安) 서문경의 後嗣를 잇게하고 자신은 70세까지 장수한다.(100회)

4 《金瓶梅》 제목의 의미

우리는 작품을 읽으면서 作者가 어떠한 意圖로 하고 많은 題目중에서 그것으로 본 작품의 제목으로 정했을까를 한번쯤은 생각하여 본다. 금병매라는 이 작품도 예외는 아닐것이다. 이 작품의 제목을 접하면 淫亂과 色情的이라는 것을 聯想한다. 사실 《金瓶梅》라는 작품명은 작품속의 세 여인 즉 潘金蓮·李瓶兒·春梅의 이름字에서 한자씩 따와 만들어진 것이다. 作者가 그들의 이름에서 그 작품명을 취한 까닭은 潘金蓮은 姦巧로, 李瓶兒는 業報로, 春梅는 淫亂으로 인해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을 알리고자 함이다.

《金瓶梅》중의 ‘金’은 바로 여인의 작은 발 (小足)을 상징한다. 작품중에서 潘金蓮의 모습을 묘사하기를;“ 어려서부터 생김새가 빼어났고 전족한 한쌍의 보기 좋은 발을 지니고 있었기에 금련이라고 불렀다. ‘金蓮’이라는 名詞가 바로 전족한 여인의 작은 발을 의미하였다. 여인의 纏足은 중국 古代의 남자들의 “戀足癖”때문에 造成된 것이라고 보고 있다. ‘瓶’은 바로 花瓶을 意味하는 것이다. 花瓶에는 각양각색의 꽃 뿐만아니라 어떠한 물건이라도 꽃을 수가 있으며, 꽃앓던 꽃이 시들면 언제든지 새로운 것으로 교환할 수가 있고, 또한 그 소유자도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바꿀 수가 있다. 때문에 ‘瓶’은 이러한 복합적인 의미와 꽃병이 보여주는 외관상의 모습과 당시의 일반적인 花瓶 (당시는 瓷器가 주류를 이룸)의 색깔이 西門慶등 그 당시의 남자들이 좋아하던 여인들의 하얀 피부빛과 일치하였다. “梅”가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작자는 왜 微賤한 신분인 春梅에게 이 이름을 賦與한 것일까? 중국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깨끗한 꽃은 오늘날

에는 봄날의 소담스러운 ‘梅花’일 것이다. 때문에 春梅의 ‘매’는 이러한 봄날같은 青春의 無限한 活力을 代表할 뿐만 아니라, 그 꽃이 주는 이미지와 같이 작고 아름다우면서도 생기가 넘치는 여인의 용모와 성격을 象徵한다고 보여진다.

5 작품에 나타난 ‘性’

* 여인을 사귀기 위한 조건: 潘·驢·鄧·小·閑 (제 4회)

《金瓶梅》중의 西門慶은 ‘飽暖思淫欲’의 人生眞理를 대표하는 인물이라 하겠다. 西門慶이 음탕한 엽색행위를 하는 데에는 많은 조건을 필요로 하고 있다. 즉 西門慶이 처음에 潘金蓮을 보고서 그녀의 미모에 빠져 王婆라는 중매인을 찾아가서 일이 成事되도록 해 달라고 부탁을 한다. 이때 王婆는 일의 성사에 필요한 전제조건으로, 첫째 潘安과 같은 용모 (潘安的容貌), 둘째 당나귀같은 물건(驢大行貨), 세째 鄧通처럼 재산이 많을 것 (鄧通般有錢), 네째 청춘 소년으로 숨 속의 바늘과 같이 부드러운 인내가 있을 것 (青春少小, 就要綿裏針一般軟款忍耐), 다섯째 한가한 시간 (要閑工夫)등의 소위 “潘驢鄧小閑” 다섯가지를 이야기 하니 西門慶은 즉시

솔직히 말해 이 다섯가지 조건은 내가 모두 갖추었소. 첫째로 나의 용모가 비록 반안에는 못미친다 해도 그런대로 쓸만하고, 둘째로 나는 어려서부터 거리에서 놀았기에 그방면에 평범치 않음을 자부할 수 있고¹⁾, 세째 나의 집에는 약간의 돈이 있어서 비록 등통과는 비교할 수 없을지라도 그럭저럭 지낼만 하고, 네째로 나는 제일 잘 참아서 그녀가 나를 사백대나 때리더라도 나는 결코 한차례도 치지않을 것이며, 다섯째로 나는 시간이 제일 많소.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이다지 부지런히 쫓아 다니겠소? (是不瞞你說, 這五件事, 我都有. 第一件 我的貌雖比不得潘安, 也充得過; 第二件我小時在三街兩港遊樁, 也頗自負不凡; 第三, 我家裏也幾貫錢財, 雖不及登通, 也頗得過日子; 第四, 我最忍耐, 他便打我四百頓, 休想我回他一拳; 第五, 我最要閑工夫, 不然, 如何來得恁勤?) - 제 3 회 -

여기에서 말하는 바의 正常的인 ‘性’과 非正常的(變態的)인 ‘性’의 구별은 그것이 일반적으로 뜻하는바의 道德이나 倫理的인 측면이 아닌 성행위 자체에 있어서의 구별을 의미한다.

1) 正常的인 ‘性’

인간에게 있어 性생활은 살아가는데 있어 어찌면 가장 중요한 활동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때문에 告子는 ‘食·色, 性也’라고까지 말을 하고 있다. 타고난 天賦的인 資質

1) 제 4 회 ; “一物從來六寸長...” 이라는 七言律詩가 立證하고 있음.

과 경제적인 힘을 이용하여 그가 接觸하는 여인들은 대개 자신 家庭의 妻妾(오월랑과 이교아, 손설아, 이병아, 반금련, 맹옥루) 과 下女들(춘매, 향란, 영춘, 소춘등), 그리고 妓女들(정애월, 이계저등), 良家집의 淫婦(임부인)等 크게 세 種類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西門慶과 性關係를 맺은 여인들

- 1) 吳月娘 2) 李嬌兒 3) 孟玉樓 4) 孫雪娥 5) 潘金蓮
- 6) 李瓶兒 7) 春梅 8) 宋蕙蓮 9) 王六兒(韓道國의 妻) 10) 鄭愛月
- 11) 如意兒 12) 林夫人 13) 葉五兒(賁四의 妻) 14) 惠元(來爵의 妻)
- 15) 蘭香 16) 迎春 17) 綉春 18) 吳銀兒 19) 李桂姐

<HOMO적인 SEX >

- 1) 書童 2) 王經

《金瓶梅》 全篇을 통해 潘金蓮과 가장 많이 관계를 하고 李瓶兒, 王六兒, 孟玉樓 順으로 되지만 眞正한 愛情이 同伴된 性行爲는 극히 드물고 술을 마셨다거나, 일시적인 衝動이 일어났을 때에 그것을 抑制하지 못하고 관계를 가질 뿐이었다. 그러므로 작품 중에 性行爲의 장면이 자주 등장하지만 대개의 경우, “이 날은 누구의 방에서 쉬었다. (是夜在(某妻妾)房中歇了.)” 혹은 “두사람의 즐거움은 끝이 없었다.(是也兩人淫樂無度)”라고 표현하고, 그 장면을 자세히 묘사하는 것은 性行爲의 頻度에 비해서는 極少數이다.

2) 變態的인 ‘性’

西門慶은 天賦的으로 가지고 태어난 身體的 利點을 最大限으로 利用하여 많은 여인들과 性的遊戲를 즐기면서도 이에 만족치 못하고 ‘淫具(제 39회)’와 ‘春書(13회)’, ‘春葯’(49회-호승으로부터 춘약을 얻음)들을 사용할 뿐만이 아니라 여러가지의 변태적인 행위까지도 동원하여 그의 성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하였다.

‘신발에 술을 따라 마시는 것 (女靴行酒: 제 6회)’이나, ‘여인의 몸에 췌를 피우는 것 (燒香: 제 69회)’ 등의 變態的인 행위도 여러 곳에서 보여진다. 여하튼 西門慶의 生理的 慾求는 일반인들의 상상을 넘어선 것으로써 하루에도 몇 여인과 혹은 한 여인과 몇 차례씩의 관계를 갖는다.

* 南風 : 西門慶의 性的慾求는 이같이 단순히 여인들만을 상대하는데 만족하지 않고 남자까지도 탐해 자기 집의 하인인 書童(34,35회)과 王六兒의 동생인 王經(71회)과도 變態的인 성행위를 갖는다. 이러한 동성간의 성관계를 ‘外交’라하고, 남자와 妻妾간의

性行爲를 ‘內交’라 하였다.

이 밖에도 작품중에는 온갖 성행위에 대한 적나라한 표현과 당시 이러한 것을 표현하는 隱語등이 많이 등장하여 작품의 생동성을 더욱 높여주고 있다. 때문에 더욱더 음서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하겠다.

《금병매》속에 사용되는 淫器具: 완벽하게 표현한 곳은 제38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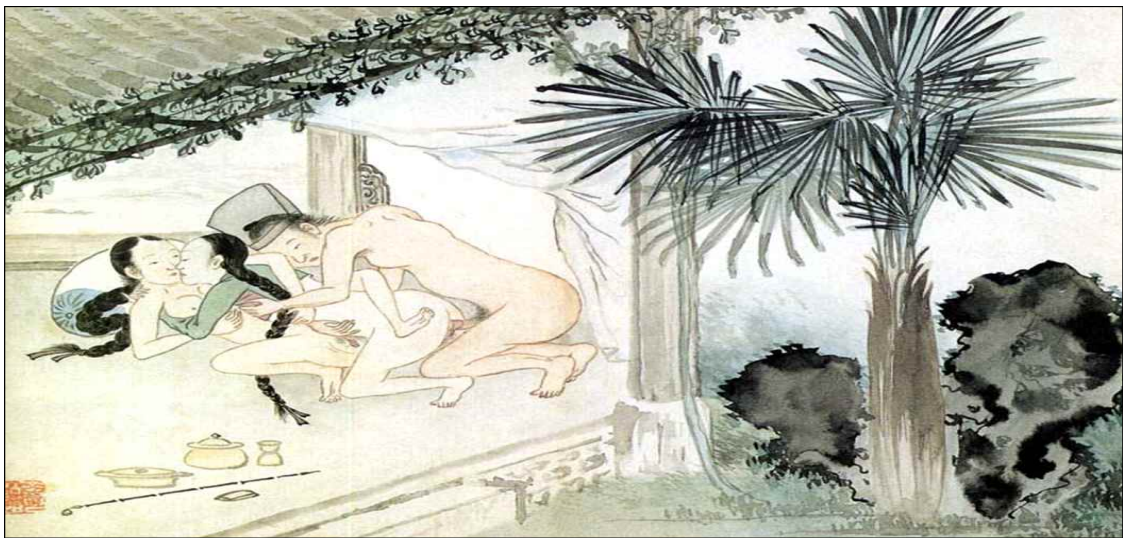
서문경은 왕육아가 놀 줄 아는 것을 보고서는 한번 잘 놀아 볼 심산으로 집에서 소매 안에다 비단 꾸러미를 가지고 왔다. 그 꾸러미를 풀어보니 안에는 은탁자·상사투·유황권·약을 넣은 흰 비단 허리띠·현옥환·봉계고·면령으로 한 뭉텅이 성행위시 사용하는 음란기구들이었다.(西門慶見婦人好風月, 一徑要打動她, 家中袖了一個錦包兒來, 打開, 裡面銀托子·相思套·硫黃圈·藥煮的白綾帶子·懸玉環·封臍膏·勉鈴, 一弄兒淫器”)(제38회)

(1) 勉鈴 (2) 景東人事 (3) 硫黃圈 (4) 銀托子 (5) 相思套 (6) 藥煮的白綾帶子, 懸玉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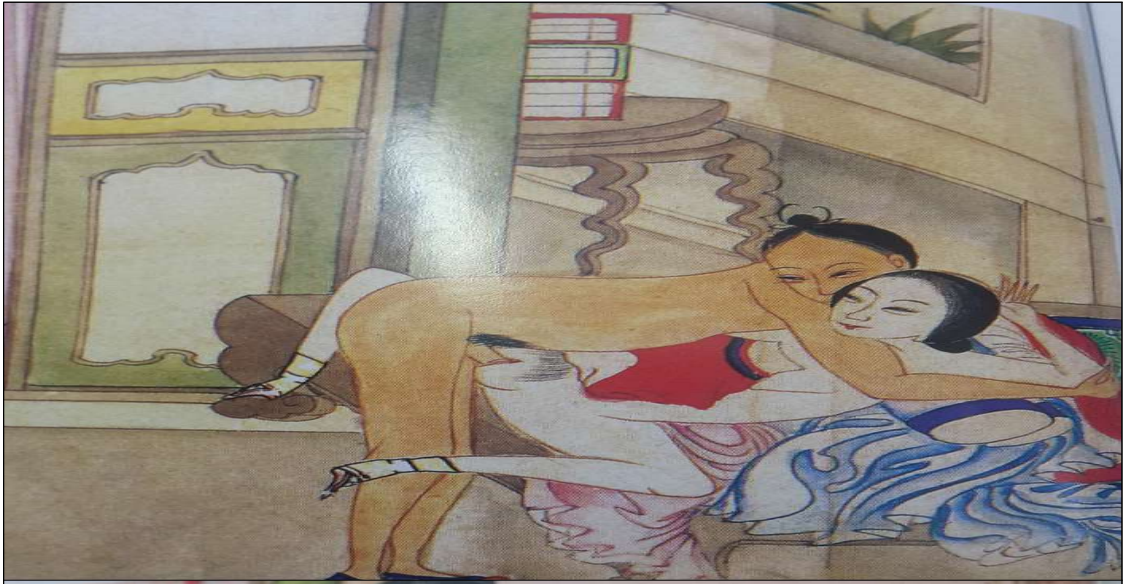
(7) 封臍膏, 閨艷聲嬌(제51회에서는 顫聲嬌라고도 함

< 春葯 및 春畫 >

1 : 서문경은 이같은 음기구를 사용할뿐만이 아니라 또한 春畫를 보면서 음욕을 더욱 고조시킨다. 그가 보는 춘화는 그가 李瓶兒에게 얻은 ‘春意二十四解本兒’(제13회)로 西門慶은 그것을 潘金蓮과 같이 보면서 淫行을 自行한다.이것은 萬曆年間에 널리 流布되었던 20여종의 춘화중에서도 가장 인기가 있었던 彩色圖 인 ‘風流艷暢圖’일 것으로 추측.







2) 춘약은 永福寺라는 절에 들렀다가 마침 西域 天竺國에서 온 梵僧으로부터 얻는다 (49회).-- 丸藥 백여알을 주며 한번에 꼭 한 알씩만 먹을 것을 당부하면서 그 效驗에 대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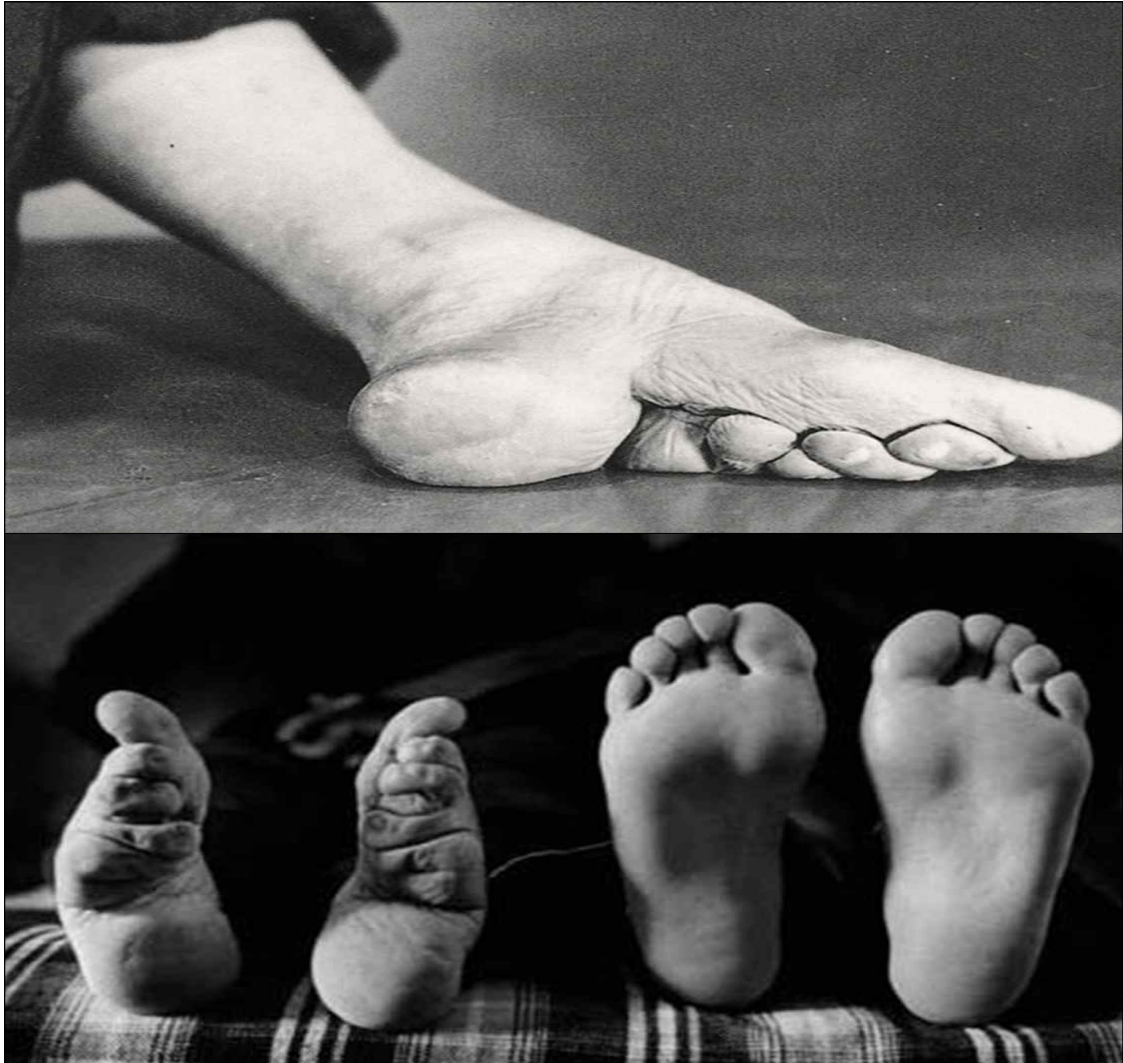
형체는 계란같고 빛깔은 누렇다. 노자가 세번 구웠고 서왕모가 손수 만들어 전한 것이요. 겉으로는 분토보다 가벼우나 안으로는 우량보다도 귀하오. 금에 비하여 금과 바꿀 수 없고 옥에 비하여 어찌 견줄 것이요.....이 약을 먹으면 가벼이 동방에 들 수 있을 것이요. 동중에서 젊음은 시들지 않고 물외 경치는 길이 발할 것이요. 옥산에는 퇴폐가 없고 단전에는 야광이 있소. 한번 싸움에 정신이 상쾌해지고, 두번 싸움에 혈기가 강해져서 아리따운 사랑이 열두가지 단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교접은 내 마음대로 하며, 밤을 새워도 단단하기가 창과 같을 것이요. 오래 먹으면 비위가 너그러워지고 위에 자양을 주며 양기를 돋우고, 백일을 먹으면 수염과 머리칼이 검어지고, 천일이 지나면 몸이 자연 강해지고 치아가 단단해지고 눈이 밝아지며 양기가 일어나면 교접을 한 연후에야 비로서 가라앉소. 그대가 만약 믿지 않는다면 밥에 섞어서 고양이에게 먹여 보시오. 삼일 안으로 그 교배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을 것이며, 나흘이 되면 열을 감당하지 못하여 흰 고양이가 검은 고양이로 될 것이요. 오줌똥이 말라서 여름이면 바람받이에서 자고, 겨울이면 물속에 뛰어 들 것입니다. 만약에 배설을 하지 않는다면 털이 모두 빠지게 됩니다. 일리를 먹을 때마다 양기는 더욱 강해져서 하룻 저녁에 열 여자를 겪어도 그 정력은 길이 상하지를 않소. 늙은 여자는 이맛살을 찌푸릴 것이며, 음부와 창녀는 손을 들고 말 것이요. 시간이 흘러 권태를 느끼거든 군사를 거두어 싸움을 파하고 냉수를 한모금 마시면 양기는 회생하고 정력은 상하지 않소. 쾌미는 밤새도록 즐거울 것이며, 춘색이 난방에 가득할 것이요.

<금병매>에 등장하는 성체위

施逞搶法(6회)·品簫(10회)·倒插花(16회)·隔山取火(27회)·老和尚撞鐘(27회)·后庭花(37회)·野狐抽絲·猿侯獻果·黃狗溺尿·仙人指路(68회)·紫簫吹(74회)등

<전족으로 하는 행위>





중국 역사상 성문화와 관련해 3개의 기현상이 있었는데, 창기와 거세한 환관, 그리고 전족이다. 앞의 두 가지는 다른 나라에도 있었지만 전족은 중국 고대의 독특한 현상이었다. 문화인류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여성의 신체에서 수치심이 집중된 부분은 민족별로 서로 다르다고 한다. 여성이 자기 나신이 드러났을 경우 일본 여자는 아랫배를 가리고 유럽 여자는 유방을 가리고 중국인은 발을 가리며, 뉴기니아 여성은 허벅지를 가리고 사모아 여자는 배꼽을, 아랍 여자는 얼굴을 가린다고 한다. 중국 여자가 이처럼 발을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처럼 중국 남자에게 있어서도 여자의 발은 흠탄의 대상이었는데 그것은 거기에 깊은 애정을 품고 그것을 미술품과 같이 관상하고 자극을 느끼며, 쾌락을 만끽할 수 있는 까닭에서였다. 중국의 전족은 그 기간과

형태에 있어서 세계사적으로도 유래 없는 악명 높은 여성 박해의 풍습이다. 중국에서 전족은 10세기 후반에 도입되어 20세기 초반에야 사라졌다. 단지 남성들이 아름답게 생각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발을 옥죄고 오그라뜨려 10cm가 채 안 되는 크기로 변형시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여자아이가 보통 4~5살이 될 때 전족을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엄지발가락을 제외한 나머지 발가락을 발바닥 쪽으로 향하게 해 퇴화시키고 반년 후에는 발등을 뒤꿈치 쪽으로 굽도록 만든다. 이 과정에서 뼈가 뒤틀어지고 발의 살은 고름으로 녹아버린다. “씩어 문드러지지 않으며 발이 작아지지 않는다. 문드러질수록 예쁜 발이 된다”는 말이 생겨나면서 이 같은 고통을 정당화하고 강요했다. 이렇게 2년이 지나면 동여맨 발은 퇴화되고 전체 발 모양이 작아진다. 이상적인 전족의 크기는 세치(9cm)로서 성인 남자의 손바닥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크기이다. 이 크기가 양증맞으면서 애처로움을 동시에 불러일으킨다는 이유에서다. 전족은 처음에는 궁중과 상류층 여성들, 무희들 사이에서 유행하다가 후대로 가면서 중·하층, 그리고 노동하는 여성들에게까지 번져 전국적 풍습이 되었다.

남성들은 이에 대해 온갖 찬사를 늘어놓으며 전족의 확산을 부추겼다. 청대의 희곡 이론가였던 이어는 전족에 대해 “작아서 형태가 없어질 지경이면 볼수록 동정하여 아끼게 되니 이것은 낮에 쓰임새가 있는 것이요, 유연하여 뼈가 없을 정도면 사랑하고 어루만지게 되니 이것은 밤에 쓰임새가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며 여성의 신체를 노리개화 하는 주장을 서슴없이 펼쳤다.

전족은 남성들에게 관능적 유혹을 부추기는 성적인 상징물이기도 했다. 당시 전족한 발은 어느 신체 부위보다 중요하게 여겨졌으며 남성에게 발을 만지게 하는 것은 몸을 허락하는 것으로 간주됐다. 중국 여인의 10대 조건에 속하는 약 10cm의 전족한 발, 즉 삼촌금련(三寸金蓮)이 그것이다. 중국 남성은 그 전족을 보거나 전족한 여인의 걸음걸이만 봐도 특이한 성적 매력을 느꼈다. 또한 전족은 제2의 성기로 남성에게 각인됐다. 특히 오랜 시간 둥글게 휘어진 발바닥의 부드러운 살로 남성의 성기를 자극하는 전회는 남녀 모두에게 강한 성적 쾌락을 줬다. 예를 들어 중국 고대소설 금병매에도 나오는 전족에 입을 맞추고 살짝 깨물며 그 속에 넣어둔 작은 열매 등을 혀로 빼먹는 ‘식(食)’, 전족한 발을 볼 무릎 다리 성기 등에 차례로 얹는 전회인 ‘승(承)’, 양 발바닥을 모아 그 틈새로 남성의 성기를 마찰시키는 ‘롱(弄)’ 등 수많은 성적 유희 방법이 발달됐다. 작은 발로 뒤통거리며 걷는 것이 귀여워서, 보고 즐기려고 ‘전족’을 시킨 것이 아니었다. 성욕을 자극한다며 여성의 발을 전족으로 만들어 섹스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이다. 매사에 느긋한 중국

사람들은 ‘전족 미녀’와 즐길 때면, 먼저 하루 종일 발을 감싸고 있던 천부터 풀었다. 그리고 발 냄새를 맡았다. 아마도 별로 향기롭지는 못한 냄새였을 것이다. 다음에는 미녀가 신었던 신발에 술을 부어서 마셨다. 이렇게 천천히 ‘발동’을 걸었다. 다음에는 손장난을 했다. 전족을 손으로 짹 쥐고 주무르거나(악·握), 손톱으로 꼬집고(날·捏), 긁어주고(소·搔), 손끝으로 살짝 비트는(염·捻) 것이다. 그리고 나서야 본격적인 ‘전족 섹스’를 즐겼다. 입으로 빨고(연·口+允), 혀로 핥고(지·舌+氏), 이로 지그시 깨물고(교·口+齒), 마침내는 입 속에 넣기도(탄·呑) 했다는 것이다. 전족을 끌어안거나(옹·擁), 발바닥을 애무하고(완·玩), 발바닥 틈에 삽입하는(농·弄) 방법도 있었다. 희롱하는 방법이 자그마치 22가지에 달했다고 한다. 그랬으니, 전족 중에서도 인기를 끄는 전족이 있었다. 이른바 ‘전족의 3귀(貴)’다. ①비((肥). 살이 통통하게 올라 풍성한 전족. ②연(軟). 부드럽고 살집이 잘 오른 전족. ③수(秀). 모양이 아름다운 전족이었다. 요컨대, 중국 사람들에게 전족은 장난감이었고, 노리개이기도 했다.

소(搔) : 전식(食) : 전족의 꺾어진 발가락 사이나 발바닥의 깊은 홈 속에 수박씨나 건포도 등을 넣어 두고서 이것을 혀로 빼 먹으면서 성적 흥분을 유발케 하는 것.

승(承): 여성의 전족을 남성의 볼,무릎,다리등으로 옮겨가면서 애무를 하다가 맨 끝에 사타구니위에 얹어 놓는 前戲.

현(懸) : 전족을 싸매고 있는 긴 천을 풀어서,이 천으로 여성의 다리를 침대에 거꾸로 매달아 놓고 성을 즐기는 것.

연(吮) : 뽀족한 여성의 발끝을 어린아이가 젖을 빨 듯이 빠는 것.

지(舐) : 발 전체를 핥는 것

교(嚙) : 가볍게 깨무는 것

교(咬) : 발의 앞부분을 세게 깨무는 것

염(捻) : 발 끝을 세 개의 손가락으로 꼬집어서 의사를 표시하는 것

악(握) : 두 손으로 쥐는 것

날(捏) : 반주하듯이 주무르는 것. 발바닥을 살살 간지럽게 긁는 것

농(弄) : 오른손으로 여성의 두 발의 발끝을 맞추어서 쥐고,왼손으로 두 발꿈치를 맞추어서 쥐면 발바닥으로 움푹 패인 곳에 작은 구멍이 생기게 되는 데 그 속에 남성을 삽입해서 마찰하는 것

**** 중국 고대 미인의 10가지 조건 :**

1. 오발선빈(烏髮蟬鬢)
2. 운계무환(雲髻霧環)
3. 아미청대(蛾眉靑黛)
4. 명모류면(明眸流眄)
5. 주순호치(朱脣皓齒)
6. 옥지소비(玉指素臂)
7. 세요설부(細腰雪膚)
8. 연보소말(蓮步小襪)
9. 홍장분식(紅粧紛飾)
10. 기향배훈(肌香配薰)

三 맺음말

吳月娘을 제외한 대부분의 여인들은 자신들의 性的,肉體的慾求와 物質的欲求에 의해 西門慶의 要求에 순순히 응한 것이므로 이를 잘 아는 西門慶이었기에 吳月娘과 이들 여인들과는 분명히 구별하여 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西門慶의 심중에도 “많을수록 좋고, 오는 자는 거절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그 주위에 있는 여인들조차도 이러한 그의 생각에 동조함으로써 그는 손쉽게 범할 수 있는 對象들 속에서 性的慾求를 滿足시켜 나갔으며 그 대상들도 또한 자신들의 貞操를 쉽게 포기하고 지키려고 별로 노력도 하지 않는다. 이 점은 西門慶이 죽어가는 순간까지도 못잊어하는 何千戶의 부인 藍氏나 王三官의 부인인 黃氏의 경우 西門慶이 수차례에 걸쳐 유혹을 하지만 결국 성공치 못하고 허사에 그치는 것에서 이러한 남녀간의 관계가 相對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입증하여 준다.

이상과 같은 분석을 통해 볼때 《金瓶梅》가 과연 指彈을 받을 “淫書”인가?하는 의문이 든다. 인간의 내면세계에 감추어져 있는 “性”이라는 本能을 題材로 삼았다고해서, 혹은 그 표현이 너무 적나라하다고 그러한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너무 지나치고 편견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것을 감상하는 후세의 많은 사람들이 작자인 소소생이 제재로 쓴 “性”이라는 것에만 현혹이 되어서는 그것을 통해 작자가 말하고자 하는 혹은 밝히고자 하는 당시 사회의 전반적인 모습이나 인간의 내면세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明代뿐만이 아니라 중국을 대표하는 ‘性小說’로 알려져 작자의 의도가 크게 誤認되고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明代 사회의 가장 정확한 ‘社會史’인 동시에 인간의 內面世界를 스스로 反省해 볼 수 있는 ‘敎訓書’라 할수 있는 본 작품이 제대로 그 가치를 인정 받지 못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때문에 현재의 시각과 관점을 가지고 본 작품을 새롭게 분석 재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하겠다.

“食·色,性也.” 孟子 < 告子篇 >